

8/18(수) 데살로니가전서 묵상(2)
데살로니가전서 1:6-10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으로 인한 여러가지 핍박과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신앙의 성장으로 인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환란 가운데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이자 지리적으로 해안도시로서 헬라 문화와 상업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모범이 되었다는 것은 이 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헬라 지경의 두 개의 대표적인 주로서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개의 주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에 걸쳐 본이 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결코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묵상한대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란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행 17:5-7,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열악한 환경에서 바울과 선교팀은 삼 주만에 이 지역에서의 선교활동을 철수하고 다음 지역인 아텐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는 망쳤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바울의 선교팀은 마게도냐의 첫 성읍인 빌립보에서도 많은 환란과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행 16:22-24,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든든히 채웠더니."). 이처럼 바울의 선교팀은 가는 곳마다 시험과 환란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환란이 많은 지역에서 더욱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 많은 환란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열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난 복음의 열매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에 관한 말씀(살전1:3)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9-10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난 또다른 복음의 역사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9-10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기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난 복음의 열매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우상을 과감히 버리게 했습니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 만을 믿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도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만이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처럼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보이는 이세상의 신을 말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올바른 종말론과 인생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주제는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잘못된 재림에 대한 신앙 때문에 여러가지 영적인 혼란과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일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살전

5:14절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선포하게 됩니다(살전 5: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살전 4:11-12,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마게도냐 지방이 아니라 비두니아 즉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바울과 선교팀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행 16: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런 확실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바울과 선교팀은 마게도냐 지방에서 아마도 기대감을 가지고 선교활동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부터 바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복음의 장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더 큰 방해로 인해 선교는 약 삼 주 만에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 가운데서 성령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진보와 열매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환란을 때때로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더욱 성숙하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히12: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결국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주시는 자를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2.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 미군의 철수로 인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대부분 장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탈레반에 의한 여성들의 인권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군의 철수 이후에 수많은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본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땅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교회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구역을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체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페루 황윤일 선교사님/가정/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